

지역 매아리

정읍시, 재산세 68억3천만원 부과

정읍시가 올해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9289건에 68억34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에 대한 납부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주택 17분)과 9월(주택 27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www.gic.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가상계좌납부(고지서에 기재)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쌍화차거리협의회, 서울

익선동 한옥마을 선진지 견학

정읍쌍화차거리협의회(회장 이관용)가 10일 서울 익선동 한옥마을 일원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견학은 행안부 공모사업인 주민주도형 골목 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한옥마을을 둘러보며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자원 확충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관용 협의회장은 "선진지 견학을 통해 회원들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협의회를 중심으로 쌍화차의 특장성을 살려 쌍화차거리가 지역 관광자원의 한 축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익선동 한옥마을은 재개발 문제로 방치된 한옥을 개조해 오픈한 찻집을 시작으로 조성된 골목이다. 좁은 골목길에는 개성 가득한 가게들이 들어서 있다. 한국적 정취를 살린 공간에 최근 유행하는 음식점과 카페가 녹아들어 예스러운과 현대의 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한편 정읍쌍화차 거리는 정읍세무서에서 양자강까지 이어지는 길목이다. 중앙길 3500m에 이르는 길가 양쪽에 13개소의 쌍화차집이 자리하고 있다.

시는 쌍화차 거리에 경관개선사업과 축제·홍보·마케팅 사업, 청년 창업물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국가예산 확보 '전력질주'

유기상 고창군수, 중앙부처 방문해 현안사업 건의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최근 기획재정부 경제예산국, 예산실 등을 찾아 지역 현안사업들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2020년 국가예산 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고창군이 요청한 현안사업은 ▲고

창공공하수 처리장 증설=고창일반산단 본격 분양을 앞두고 폐수 발생량 증가 대비 ▲상하용정 삼습 가뭄 재해지구 정비=매년 가뭄 피해 발생하고 있는 상하면 용정지구의 적정 용수 확보 ▲고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고창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이다.

유기상 군수는 기재부에 사업 타당

성을 적극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또 이날 고창출신 중앙부처 근무자 모임에 참석해 출향 공직자들도 전력을 다해 국비확보에 힘써 고향 발전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모든 군민의 삶이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이평면 평령지구 배수개선사업 전-후 정비계획사진.

정읍시, 이평면 평령지구 배수개선사업 국비 73억원 확보

2025년까지 평령 배수로 등 7.7km 정비로 상습 침수 개선

정읍시가 이평면 평령지구 배수개선사업에 국비 73억원을 확보했다.

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가 상습 침수 피해지역인 평령리와 창동리 일원 농경지 112ha의 배수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결과 맺은 결실이다.

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이평면 평령 배수로 5.0km와 창동 배수로 2.7km를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 기본조사에 들어가 2021년 착공, 2025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민선7기 공약사업인 이평면 평령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재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영농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이평면 평령지구 일원은 평야 지대 농경지를 관통하는 배수로의 통수 단면이 적어 하천 합류 시

병목현상으로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못했다. 따라서 우기철 국지성 호우 시마다 농경지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이다.

이에 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를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사업 건의를 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그 결과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서 청문실, 치안고객만족도 향상 위한 중간관리자 간담회 실시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 청문감사실에서는 경찰청 주관 2019년 치안고객만족도 조사에 대비해 중간관리자 간담회를 가졌다.

치안고객만족도 조사는 전국 경찰관서의 치안서비스를 이용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국민만족도를 민원, 112 신고처리, 수사·형사, 교통사고조사 등 4개 분야로 연 1회 카카오톡 알림톡 설문문을 통해 전문성, 친절도, 공정성, 신속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

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치안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조사이다.

이번 간담회는 대민접점 최일선 근무자를 감독하는 중간관리자의 관심도가 치안고객만족도 향상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경찰서 방문 민원인들에게 향상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 분야 만족도 평가 및 대책방안에 대한 회의를 실시했다. 조태승 교통관리계장은 치안고객

만족도 조사에 대해 악성민원인들이 "나쁜 점수를 주겠다"며 협박을 하는 등 경찰활동을 위축시키는 도구로 활용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나, 궁극적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인권경찰이 되려면 감내해야 할 부분임에 공감하고

중간관리자들이 소속 직원들과 적극 소통하여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전언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이 주택 화재 피해 월남참전용사 김영길 씨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새로 거주할 주택을 신축중이다.

'무더위 날려줄 훈훈한 귀감'

고창군, 주택 화재 피해 월남참전용사에 새집 지어주기 '감동'

불의의 화재로 인해 자칫 삶의 의욕이 꺾일 뻔 했던 보훈가족에게 뜨거운 온정이 담겨있고 있어 무더위를 날려줄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월남 참전유공자 김영길(무장면·78)씨가 지난 2018년 12월 발생한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고창군과 월남참전자 전우회 고창지회(지회장 김양수), 전북 서부보훈지청(지청장 황선우), 육군 35사단 등이 김씨가 하루빨리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새로 거주할 주택을 신축중이다.

고창군이 주택 신축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와 폐기물 처리 등을 전담하고, 35사단 공병대대가 주택 신축을 진행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보훈지청에서는 김씨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으로 선정해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현재 주택은 순조롭게 건축 중이며 많은 재능기부자들의 순수하고 자발적인 재능기부에 힘입어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고창군 사회복지과 임채남 과장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봉사하신 유공자를 선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김씨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가전제품 등을 기부 받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육군에서 후원하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은 6·25와 월남 참전자들의 조국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추진하며 지자체와 군(軍)이 함께 협력하는 모범 사례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위한 농정 거버넌스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9일 군청회의실에서 유통업체와 10개 품목별 생산자 공산회대표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2차 농정 거버넌스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정 거버넌스는 지역주민, 단체, 지자체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이 갖고 있는 과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양파, 감자, 딸기, 수박 등 부안군의 주요전라품목 생산자 대표들과 통합마케팅조직 및 지역농협, 부안군청 등 다양한 농업관련 주체가 참여한 협의회로서, 농업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유통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토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공산회 대표들은 이번 마늘, 양파 가격 폭락과 같이 대외적 환경에

따라 타 작목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있으니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가공공장 설치 등 중간지원조직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안군 한근호 부군수는 "모두 함께 소통하여 농민은 아무걱정 없이 최고 품질의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조직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받고 팔아주는 유통망 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군도 부안민들의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이번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산지농산물에 대한 생산 및 유통 경쟁력 제고사업을 발굴하고, 오는 28일 군과 생산자, 유통조직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해 농업경쟁력 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 하겠다고 결의했다. /부안=김영진 기자

부안 홍봉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 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세** | 750ml 1ea/12% |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세** | 375ml 5ea/13% | **GIFT SET 6세**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세** | 375ml 2ea/13% |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